



제목	Athens and Persia in the Fifth Century BC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Cambridge University Press
발행일	1997. 6. 28.
저자	Margaret C. Miller
출판국가	미국
페이지수	331
ISBN 또는 ISSN	978-0521607582

내용 요약

기원전 5세기말 고대 아테네인들이 당시 적대국이었던 페르시아인들을 예술품 뿐만 아니라 연극과 의회에서 야만인으로 묘사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고고학, 서체, 도상학 및 문학적 증거에 의하면 이러한 경멸의 주장은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문화에 대한 아테네 수용의 일부 측면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기원전 5세기 아테네와 페르시아의 관계를 문화·예술·경제·사회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서술하고 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양국사이에 벌어진 전쟁을 통해 페르시아의 이국적인 금제동물장식, 청동투구, 재갈, 단검의 일종인 아키나케스, 미늘갑옷, 텐트, 가구, 직물, 팔찌, 파라솔 등이 아테네로 유입되었으며, 페르시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황소를 사냥하는 사자의 그림이 아테네에서는 황소를 대체하여 말을 사냥하고 있는 사자의 그림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면 페르시아 문화가 아테네에 전파되는 과정에서의 혼합과 변형이 수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역품목으로는 그리스 도자기, 페르시아 식기류, 아테네에서 제조된 아케메네스 왕조의 동전, 그리스어를 할 수 있는 동양인 노예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당시 양국의 상호 교류 양상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문헌자료와 그리스 도자기에 묘사된 그리스의 원피스형 키톤(chiton)과 솔 형태의 히마티온(himation), 페르시아의 코트형 캔디스(candys), 튜닉형 상의 이펜디테스(ependytes), 바지 아낙시리데스(anaxyrides)를 통해 이국적 복식들의 변용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